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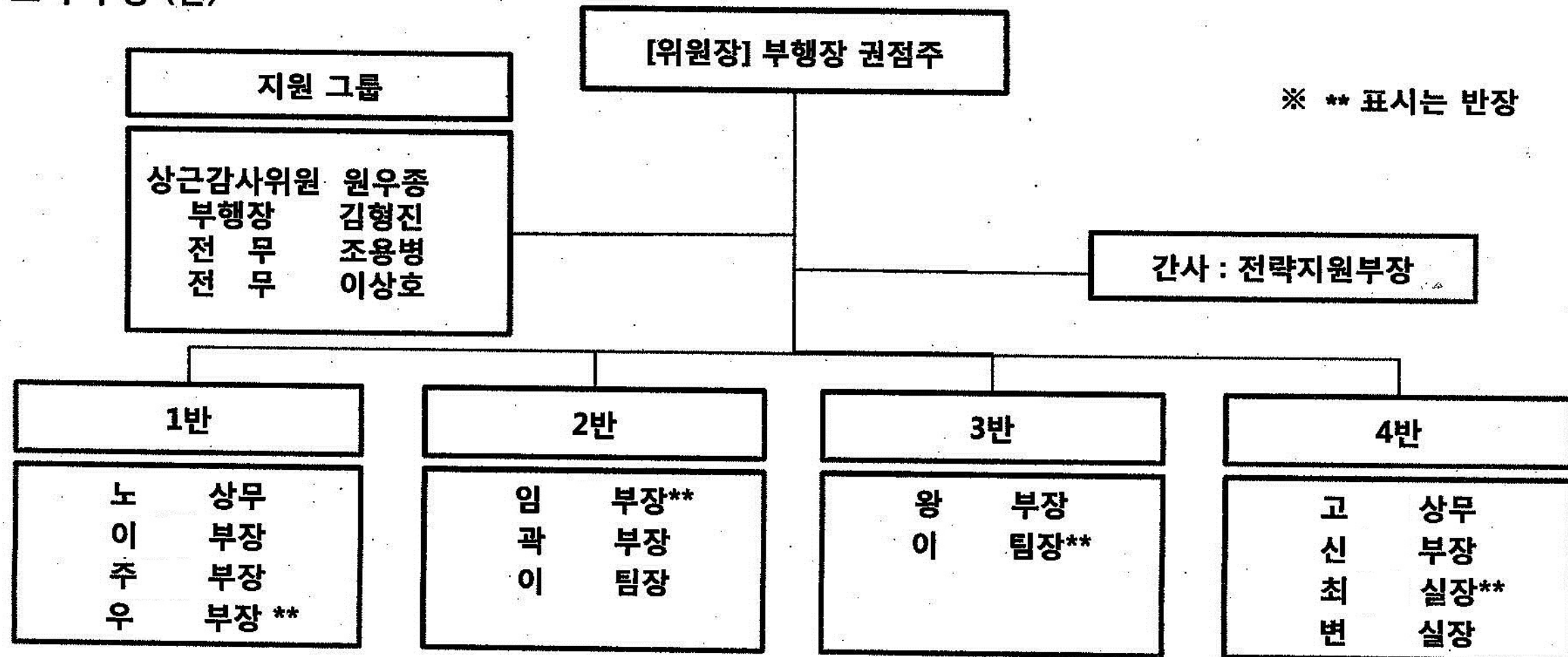
■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운영 (案)

▷ 설립 배경 : 사고대응위원회 운영 지침

- 중대한 사고 및 은행 평판 훼손이 예상되는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사고대응위원회 운영
- 금번 사안의 중요성, 조직 영향도 측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한 단계 격상시킨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로 확대,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

▷ 운영 기간 : 전체 회의를 통한 해산 결정시까지

▷ 조직 구성 (안)



- 배임관련 여신조사
- 채널 Communication
- 고객 관리

- 횡령관련 계좌 조사

- 대외 및 대관 업무
- 홍보 담당

- 내부관리 (노조/직원)
- 주주 및 법무

▷ 비상대책회의 운영

- Weekly Meeting : 전체회의로 운영

- 매주 금요일, 오전 8시
- Daily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토의, 반별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공유

- Daily Meeting : 반장 및 상무 참석

- 매일, 오후 5시(금요일 제외)
- 특이사항 분석 및 보고, 사안별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

※ 기타 사항

- 비대위 위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전체 회의(수시) 개최를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
- 반장은 개별 반원 대상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음

▷ 보고 체계

- 반장은 당일 특이사항,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, 향후 대응 계획을 지원그룹 및 위원장에게 매일 보고
- 위원장은 보고사항 중 사안별 경중에 따라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
관련 내용의 대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공유 가능

위기대응위원회 회의결과

일 시 : 2010.9.3, 09:00~10:30

참석자 : 권점주, 임주, 이신, 이우, 박김, 최정, 왕변, 전고, 손오, 서

◆ 토의내용

<동향 보고>

- 직원, 고객 모두 은행 내부적인 사안을 외부에 공표한 배경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음.
- 로이터 등 외국언론이 국내 기사를 받아서 게재된 상황이며 외국 금융기관 특이 동향은 없음
- 미국과 일본의 감독 당국에서 관심 표명
- 신용평가사에서는 충당금 적립 적정성 및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한 관심 있으나 명확히 해명함.
- 일부 고객(특히 기업고객)들은 본 사건의 영향으로 여신 취급이 더욱 엄격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함.
- 은행의 내부통제체계와 여신취급/승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.
→ 내부통제나 여신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했음. 제대로 작동된 관리체계이었음에도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압력에 의해 훼손된 것이 사건의 본질임. 일부 운영리스크 상의 문제점 인정됨.
- 금일 오전 영추그룹 본부장 집합회의를 통해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함.(기업그룹은 금일중 진행예정)
- 전일 신사장님의 언론을 통한 반박내용에 대한 대응논리 및 대응수준 결정 필요성 제기 → 비서실 주관 별도 대응

<회의 결과>

- 기존의 확인된 내용에 추가하여 소송진행에 대한 대비차원 및 대고객/직원 위무 차원의 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3개의 업무추진팀 구성

팀 명	역 할	주 관 부 서	비 고
여신조사팀	- 금강산랜드 등 3개 관련 사건 취급경위에 대한 정황조사 : 심사역 등 관련자 중심으로 구체적 정황 보강 및 검찰조사 준비 : 여신의 유용여부에 대한 세부 집중조사	여신심사부 (경영감사부,기업여신관리부,비서실 등 공조)	- 고소사건 이외에 유사유형의 사례발굴 필요성
계좌추적팀	- 횡령 사건에 대한 관련계좌 추적 작업	경영감사팀	
대응전략팀	- 고객/직원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: 주요 관심사 도출 및 대응방안 수립	고객만족센터* (각 사업부 및 글로벌, 자금부 등 공조)	

* 총7명:최 (영추),김 (기관),이 (PB),박 (WM),장 (기업),염 (자금),김 (글로벌)

- 근일 오후 방송을 통해 전직원 커뮤니케이션 시행
 - : 변추실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이슈 및 현안 사항과 사건 개요를 보다 디테일한 수준으로 정리 예정
 - : 발표는 권점주 수석부행장 명의로 함.